

AI 컴퍼니... 한국형 AI 반도체 개발... 친구같은 AI 플랫폼

(SKT)

(KT)

(LG유플러스)

>> 1면 '脫통신 바쁜 이통사'서 계속

이통사 수장, 제각각 AI 청사진
SKT, 사피온 앞세워 시장 공략
KT, 한국형 AI반도체 폴스택 목표
LGU+, 소상공인 위한 AI 서비스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SKT 관계자는 “초거대 AI를 성장형 AI 서비스인 ‘에이닷’에 적용했다. GP T-3를 대화에 적합한 모델로 튜닝해 적용하고 있다. 감성형, 인포형, 태스크형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닷 서비스에서 고객 사용을 늘리기 위해 킬러 서비스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SKT는 또 지난 1월 자사의 AI 반도체 사업부인 ‘사피온’을 분사시켰다. 사피온은 2020년 4월 연구개발 테스트 용도로 AI 반도체를 개발한 이후 같은 해

11월에 ‘사피온 X220’을 상용 제품으로 내놓았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추론 서비스 반도체 시장과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거대 AI가 답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AI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위한 KT의 3대 발전 전략으로 ▲초거대 AI 상용화 ▲AI 인프라 혁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꼽았다.

구 대표는 “초거대 AI는 성능, 확장성, 비용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 기존 AI에서 더 나아가 범용성, 맞춤형, 창의적 학습이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어느 기업든 KT의 초거대 AI를 활용하도록 해 핵심 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KT는 AI 기술로 화물차량에 최

적의 경로를 제공하고 물류센터에도 직원 동선을 설계해주는 물류 플랫폼을 선보였는데, AI 물류 서비스 분야에 2025년까지 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KT는 또 한국형 AI 반도체를 개발해 외산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AI 생태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설계업체인 리벨리온,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모레 등 AI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또 AI 원팀을 통해 카이스트, 한양대, ETRI 등과 AI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기존 대비 3배나 효율을 높인 한국형 AI 반도체 폴스택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AI는 모든 서비스의 기본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AI 통합 브랜드 ‘익시’를 선보여 고객에게 더 가

이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익시는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친구 같은 AI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통신사에서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U+3.0’ 비전을 공개한 바 있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I 기술을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모든 서비스의 기본이 된다”며 “LG유플러스도 경쟁사에 못지 않게 AI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AI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LG그룹에서 개발한 초거대 AI인 ‘엑사원’을 AICC(인공지능 컨택센터) 등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2월에 소상공인을 위한 콜봇 서비스 ‘우리가게 AI’를 출시해 AI가 사람을 대신해 매장 정보 제공, 예약 등 응대를 돕는다는 전략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디지코 전환 성과’ 구현모 KT 대표, 연임 ‘무계’

사업·실적 등 괄목할 만한 성과
이사회 내부 친노·친문인사 변수

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대한 긍정론이 우세하다. 다만 KT 이사회 내부에 ‘친노·친문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구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 임명되기 전 일이다. 구 대표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다. KT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표이사 자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친노·친문 인사들’이 많이 포진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KT는 그동안 정치 권력 교체가 대표 선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KT가 민영화가 된

후 연임을 마친 대표의 황창규 전 회장 이 유일하다.

KT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구 대표를 차기 대표 선출과 관련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관에 따라 구 대표의 연임 우선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안에는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이고, 이 위원회에서 구 대표가 적격자로 판단되면 이사회의 결정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게 된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장과 사외이사 8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 대표의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

는 이유는 그가 지난 2020년 10월 통신 기업에서 디지털플랫폼 기업인 ‘디지코’로의 변화를 선언한 후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ABC 사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과 B2B 산업을 주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현재 이 사안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 매출, 기업가치 등 수치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략 발표 후 2년이 지난 현재 KT는 통신 3사 중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며, 디지코 전략이 주효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무선, 인터넷, 기업회선 등 기존 통신 사업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내면서 미디어·콘텐츠, 클라우드·IDC, 기업메시징 등 B2B 및 디지코 사업이 성장을 본격화했다. 지난 2019년 14조 원 수준이었던 서비스 매출은 디지코로 확장된 이후 2020년 15조원을 돌파했다. KT 역사상 가장 큰 서비스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실적과 주가를 끌어 올린 것은 사실이다”며 “연임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대표 연임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연임이 불가할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라는 분석이 더 많다. KT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4년 5월에서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강’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정권 교체가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구 대표는 어느 정치권에도 포함되지 않고 34년간 KT에서 쫓 성장한 인물로 정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KT 관계자는 “구 대표는 민간 기업의 대표이고 연임은 정권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에서는 새 인물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KT 이사회에는 친노·친문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 양측이 불협화음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구 대표도 이사회 멤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라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다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현 정권에서 KT 대표 자리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채윤정 기자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2-1202-001호

도시계획시설(대로1-15호선)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2-222호(2022.06.28.)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대로1-15호선) 조성사업(C구간)」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사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시행자의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명칭: 도시계획시설(대로1-15호선) 조성사업
※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 기반시설 ©구역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비고
© 구역	백마고 하부 도로개설	-사업면적: 4,360.4㎡ ※ 도로개설: B=27.8m, L=158.79m	대로1-15호선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1로 29-37, 406호
- 다. 조합장: 김재관

○ 보상계획

- 가. 보상대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92 일원 소재 토지 및 물건 등

구분	소재지
토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054, 1056, 1061, 514-1, 1062, 514-2, 514-3, 1064, 1197-1, 1066, 1220, 1065, 1204, 518-2, 1052, 1053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 토지·물건조사 등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고양시청 제2별관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토지·물건조사 등의 세부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미등기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등 포함)에는 본 공고로 대체합니다. ※ 향후 기본조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분할축량, 사업지구 경계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편지등기 및 편지등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상면적, 보상대상, 세부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 2023년 2월 이후 예정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보상 절차 진행 등에 따라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及以上的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명에 대하여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보상협의 등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별 손실보상액의 요청을 발송하고, 개별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액 등에 합의하는 경우 손실보상액의 계약서 작성, 날인 등 절차에 의거 계약이 체결됩니다.
- 보상금의 지급은 보상협의계약 체결 관련 구비서류 등을 검토 후 출금이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현금보상) 처리됩니다.

○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2022.12.02(금) ~ 2022.12.23(금)
- 나. 열람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장로102번길 48 (주교동, 고양시청 제2별관) 2층 도시정비과 ☎ 031-8075-3162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29-37 (풍동, 서광미래프라자) 406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 031-907-7711
※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방문하시면 보상계획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열람방법
-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본인여부 확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 라. 이의신청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2022.12.23.까지 도착)으로 제출하시어 하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기타사항

- 가. 물건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소유자가 상이한 물건 등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물건조사 내용대로 보상 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입니다.
- 다. 도시계획시설(대로1-15호선) 조성사업 시행으로 원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전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하락까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전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라. 상기 손실보상계획은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사유 등으로 보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의 여건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열람 안내로 대신합니다.
- 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031-907-7711 또는 보상담당자(김종훈 과장, 010-5327-5559)에게 연락 바랍니다.
- 사.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 게시되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031-907-7711 또는 보상담당자(김종훈 과장, 010-5327-5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2.02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